

골격계의 결핵

김예원/김예원내과의원장

골격계의 결핵은 현대에 이르면서 그 발생빈도가 감소되어 왔다. 성인, 특히 노년층에 흔하며 남녀의 비는 같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활동성 폐결핵이나 잠복하고 있던 병소로부터 결핵균이 임파계나 혈류를 타고 전파되어 골격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골격계에 도달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결핵균의 숫자는 적은 편이어서 치료에 잘 반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단 골격계에 도달한 결핵균은 혈액 공급이 풍부하면서도 결핵균을 공격하는 대식세포의 수가 적은 골간단부 즉 골단의 가운데 부근에서부터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활액막, 관절강 쪽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강이 좁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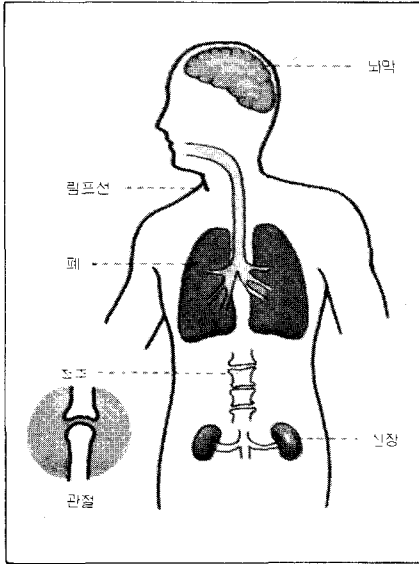
과거에는 골격계의 결핵으로 심각한 후유증이나 신체의 변형 등이 흔히 왔으나 현대에는 진단방법이 크게 발달되어 비교적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골격계의 결핵중 가장 흔한 것은 결핵성 척추염이다. 오랜 옛날부터 곰사등이

또는 곱추로 불리우는 흉추의 기형이 결핵의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기억되어 왔다. 결핵성 척추염은 흉추와 요추에 가장 잘 오며 2~3%에서는 경추를 침범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보통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에서 병변이 시작하여 이 추간판이 파괴되면서 척추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인접한 척추로 염증이 파급되어 점차로 척추자체도 파괴되기에 이른다.

때로는 척추를 싸고 있는 연조직에도 침범하여 척추주위 농양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증상은 배부통증 또는 요통이 주가 되는데 때로는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열이 나는 수도 있고 활동성 폐결핵이 꼭 동반되는 것은 아니나 과거에 앓았던 흔적이라도 나타나는 수가 많다.

척추의 X선 사진에서 척추의 파괴적인 병변을 보고 결핵을 의심할 수 있게 된다. 척추 주변조직으로 병변이 퍼지게 되면 병변 부위에 따라 종격동이 커지는 수도 있고 심장 뒤쪽으로 타원형의 음영이 보이기도 하며 요근(Psoas)농양, 인두후농양, 쇄골상부나 서혜부에 농양이 종괴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비슷한 X



선 소견이 포도상구균 등에 의한 척추의 화농성 염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침생검을 시행하여 세균학적 또는 조직 소견에 의해 감별진단이 가능하다.

때로는 절개한 후 척추 추체의 생검으로 확진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진행되어 나가다가 척추의 추체끼리 서로 엉겨붙어 유합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과를 밟는 수가 많다. 치료는 역시 항결핵제에 의한 표준화학요법이 주가 된다.

과거에는 장기간에 걸친 침대 요양 및 척추의 고정, 척추관절 유합술 등의 외과적 처치를 필요로 하였으나 요즘에는 상황이 다르다. 보통은 약물요법으로 잘 치료될 수 있으나 수주간의 약물 투여에도 불구하고 신경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점차 진행되는 경우 외과적 처치가 적용이 된다. 또한 척추의 안정성 유지에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방유합술 같은 외과적 처치를 고려하게 된다.

결핵성 관절염은 엉덩이의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가장 흔히 온다. 그러나 팔꿈치, 어깨, 손과 발의 관절들에도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한개의 관절을 침범하지만 다발성으로 오는 수도 있다. 활액막의 생검이나 조직과 농에서 균을 검출함으로써 확진을 하게된다. 결핵성 관절염 역시 외과적 처치를 하지 않아도 항결핵제에 의한 화학요법만으로 잘 치료된다. 하지만 활액막의 파괴가 심하면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며 일정기간의 고정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뼈나 관절의 결핵에 합병하여 이차적으로 결핵성 건초염이 오기도 한다. 특히 손을 침범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하여지는데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라하여 결핵성 염증으로 인하여 손목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게되고 그로 말미암아 손가락이나 손, 또는 팔꿈치에까지 통증과 감각이상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항결핵 화학요법 뿐 만 아니라 섬유화된 병변부위를 제거해내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결핵에 감염된 환자에서 어떤 부위에 국한된 관절염이나 뼈의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체중을 받는 관절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는 결핵성 염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척추에 병변이 의심스러울 때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조기에 진단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럼으로써 뇌막염으로 변진다면가 심한 기형이나 반신마비 등의 합병증과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ㅈ